



소개

## 리베르소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

화이트 골드로 재해석한  
기술력과 미적 아름다움의 진귀한 결합

### 주요 특징:

- **탁월한 워치메이킹:** 123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자이로투르비옹, 16 초마다 360° 회전하는 내부 케이지, 1 분에 1 번 회전하는 페리페럴 캐리지
- **혁신적인 더블 휠 메커니즘의 조절 가능한 버클:** 46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화이트 골드(18K, 750/1000) 폴딩 버클, 무게 약 30g, 0.5mm 길이 조절 가능
-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화이트 골드(18K, 750/1000) 소재의 플레이트와 브릿지는 레이저로 커팅하여 200 개의 홈을 만든 다음 1 명의 장인이 1 개의 위치에 대해 래커 처리 (매뉴팩처 내 3 명의 장인만 숙달한 기술)

예거 르쿨트르는 예술적 표현을 위한 캔버스로서 리베르소의 모든 잠재력을 탐구하며 2023 년에 최고의 워치메이킹 전문성과 정교하고 세련된 수작업이 결합된 특별한 타임피스인 리베르소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 를 선보였습니다. 그랑 메종의 시그니처 다축 투르비옹과 최고급 장식 장인 정신이 결합된 이 작품은 히브리스 컬렉션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2025 년, 메종은 리베르소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 를 18k 화이트 골드(750/1000)로 재해석하여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입니다.

### 투르비옹의 매력에서 영감을 얻은 독창적인 기술력

1931 년에 출시된 리베르소는 당시 유행을 선도했던 ‘스포츠를 즐기는紳사(sporting gentleman)’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1858-1947 년 당시 영국령 인도에 주둔하던 장교들은 격렬한 폴로 경기를 하는 동안에도 파손되지 않는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시계를 제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형태와 기능을 완벽하게 통합한 리베르소가 탄생했습니다. 각계각층의 트렌드세터들로부터 즉각적인 호응을 얻었던 리베르소는 곧 남성과 여성을 위한 새로운 버전이 등장하면서 본래의 스포츠용 목적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리베르소의 아이코닉한 양면 케이스(특히 CH159982)와 독특한 아르데코 라인은 현재까지 변함없이 유지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리베르소는 스타일과 기능의 완벽한 결합으로 탄생했습니다. 아르데코 미학에 기반을 둔 이 모델은 그랑 메종의 전문성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리베르소의 칼리버는 생산 초기부터 직사각형 케이스의 곡선을 따라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극대화하여 칼리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독창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1931 년, 이 모델은 파인 위치메이킹의 혁명으로 여겨졌습니다. 독특한 직사각형 케이스에는 그 형태에 맞춰 디자인된 칼리버를 장착했으며, 충격과 습기, 세월의 흐름으로부터 칼리버를 보호하기 위해 전용 케이싱 링에 고정했습니다.

매뉴팩처의 이러한 기술적 도전은 1990 년대 초, 예거 르쿨트르가 리베르소에 하이 컴플리케이션을 도입하면서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이로투르비옹의 네 번째 버전인 칼리버 179 는 매뉴팩처의 시그니처 다축 투르비옹(특히 CH694598A5)으로, 리베르소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리베르소의 직사각형 케이스 형태에 맞는 무브먼트인 동시에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슬림한 무브먼트는 매뉴팩처의 엔지니어링 기술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칼리버 179 는 각 다이얼에 다른 시간대를 표시하는 듀오페이스 무브먼트(특히 EP0633514)로 뒷면 다이얼에는 세컨드 타임존에 대한 24 시간 인디케이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매혹적인 움직임을 자랑하는 자이로투르비옹의 구조는 매우 복잡합니다. 총 123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초경량 티타늄 케이스와 볼 베어링에 설치된 페리페럴 캐리지가 서로 다른 속도로 수직 회전합니다. 내부 투르비옹 케이스는 16 초마다 360 도 회전하고 페리페럴 캐리지는 1 분에 1 번씩 회전합니다. 이 페리페럴 캐리지는 스몰 세컨즈 기능을 제공하며 투르비옹을 둘러싼 링에 표시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메커니즘의 중심에서 힘차게 박동하는 그레이 컬러의 반구형 밸런스 스프링과 자이로랩 밸런스 '휠'의 독특한 이중 앵커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요소 모두 더욱 뛰어난 정확도와 기계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예거 르쿨트르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입증합니다. 이러한 열정으로 매뉴팩처의 엔지니어들은 수년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밸런스 스프링을



제작해왔으며, 자이로투르비온 중심의 빈 구체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반구형 밸런스 스프링은 매우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미적 세련미를 더해줍니다. 자이로랩의 이중 앵커 형태는 공기 마찰을 줄여 시간 측정의 정확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브릿지가 아닌 볼 베어링 링으로 투르비온 메커니즘이 지지되기 때문에 플라이잉 자이로투르비온은 마치 리베르소의 앞면 다이얼과 뒷면 다이얼 사이 공간에 아무런 지지 수단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투르비온 표시창 바로 아래, 시계 크래들에 위치한 폴리싱 처리된 블루 래커 디스크의 거울 같은 표면에서 반사되는 듯한 반짝임으로 더욱 강조됩니다.

### 매뉴팩처 장인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새로운 컬러 팔레트

---

리베르소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의 솔리드 화이트 골드 케이스와 브릿지, 장식 플레이트와 풍부한 대비를 이루는 폴리싱 처리된 다크 블루 래커는 시계의 앞면과 뒷면 다이얼 모두에 장식되어 있습니다.

듀오페이스 무브먼트를 갖춘 리베르소는 두 가지의 뚜렷한 특징이 돋보입니다. 앞면 다이얼에서는 오리지널 리베르소 디자인의 요소인 아르데코 코드의 기하학적 패턴을 연상시키는 얇은 선으로 이루어진 격자무늬가 진귀한 메탈 케이스의 컬러와 조화를 이룹니다. 화이트 골드의 차가운 실버 톤은 플레이트 및 브릿지의 블루 래커와 대비를 이루며, 앞면 다이얼의 짙은 그라데이션 블루 래커와 어우러집니다.

이 선들은 사실 래커 작업을 위해 표면을 파냈을 때 칼리버 플레이트 메탈에 남게 된 매우 미세한 홈(rib)입니다. 이는 매우 정밀한 작업을 거쳐 완성된 디테일로 풍부한 컬러와 정확한 깊이감을 얻기 위해 메탈 홈 사이에 래커를 수작업으로 도포 후 표면에 광택을 더하기 위해 같은 장인이 수작업으로 폴리싱 처리하여 선 디테일과 수평을 이루도록 완성하였습니다.

뒷면 다이얼의 스켈레톤 처리된 아워 미닛 링과 이를 지지하는 브릿지의 섬세한 트레이서리(tracery) 장식은 블루 래커로 마감되어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배가시키며 다양한 무브먼트 부품이 지닌 따뜻한 톤 및 마이크로 블라스팅의 부드러운 텍스처와 선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기술과 전통의 매혹적인 결합을 보여주는 뒷면 다이얼 장식은 수작업한 챔퍼링 및 래커링이 조화를 이룬 레이저 스켈레톤 구조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위치메이킹 예술과 과학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면서도 전통을 존중하고자 하는 예거 르쿨트르의 신념을 보여줍니다. 자이로투르비온의 케이스에만 약



14 시간의 챔퍼링 작업을 필요로 하며 반대편에 위치한 브릿지의 시그니처 모양을 완성하기 위해 8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리베르소 히브리시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 는 최고 수준의 장인 정신을 추구하는 그랑 메종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 시대를 초월한 아이콘을 탄생시킨 아르데코 디자인의 완벽한 표현

---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직선적인 기하학적 구조와 조화로운 비율의 리베르소 케이스는 특별한 슬라이드 및 회전형 메커니즘을 결합한 복잡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크래들 내부에는 블루 래커 디스크에서 뿔어나가는 선레이 패턴이 특징입니다. 다이얼 위아래의 시그니처 가드룬으로 강조되는 강렬한 아르데코 코드는 리베르소 히브리시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 에 장착된 두 다이얼의 정교한 장식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복잡한 자이로투르비용을 포함해 382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리베르소 히브리시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 는 매우 정교합니다. 13.63mm 에 불과한 전체 두께와 간결한 러그로 우아함과 편안함을 동시에 선사하며, 세련미와 착용감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한 엔지니어들의 독창성을 입증합니다.

전체 화이트 골드(18K, 750/1000)로 제작되었으며 무게가 약 30g 인 리베르소 히브리시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 의 조절 가능한 폴딩 버클은 기술적 혁신과 절제된 품격을 보여줍니다. 정교하게 조립된 46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복잡한 메커니즘은 0.5mm 까지 미세 조정이 가능한 더블 휠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완벽한 맞춤 제작을 선사합니다. 시계의 뛰어난 예술성을 완성해주는 버클은 인체공학적인 세련미와 진귀한 메탈이 지닌 시대를 초월한 매력을 결합하여, 정확성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예거 르쿨트르의 열정을 반영합니다.

예술과 기계 기술의 진정한 애호가들을 위해 제작된 리베르소 히브리시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 는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의 한 지붕 아래 모인 180 가지 기술과 최고의 경지에 오른 고도로 숙련된 장인들 간의 놀라운 협력을 통해 탄생한 진귀한 타임피스입니다.

### 상세 정보

---

#### 리베르소 히브리시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

케이스: 화이트 골드(18K, 750/1000)



**크기:** 51.1 x 31mm, 두께 13.63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179

**기능:** 양면 다이얼의 시, 분, 후면 다이얼에 24 시간 인디케이터가 장착된 세컨드 타임존

자이로투르비옹(양면 다이얼에서 모두 확인 가능)

**파워 리저브:** 40 시간

**앞면 다이얼:** 블루 래커

**뒷면 다이얼:** 블루 래커의 스켈레톤 구조

**방수:** 30m

**스트랩:** 블루 엘리게이터 가죽

**제품 번호:** Q39434E1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

###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소개

히브리스(hybris, 초과를 뜻하는 그리스어)는 창의성과 전문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탁월한 업적을 성취하는 대담함을 의미합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진정한 아이디어 연구를 발전시키며 위치메이커와 장인의 대담한 열망에 부응해 왔습니다. 이렇듯 끊임없는 혁신 추구를 바탕으로, 2003년에는 가장 정교하고 획기적인 컴플리케이션이 장착된 히브리스 메카니카 컬렉션이 등장했으며 지금까지 획득한 특허는 54 건에 달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확장한 메종은 파인 위치메이킹과 예술적 장인정신의 정수를 결합한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컬렉션을 2014 년 국제고급시계박람회(SIHH)에서 선보였습니다. 히브리스 메카니카의 뛰어난 15 개 칼리버에 생명을 불어넣은 히브리스 아티스티카는 기술적 완성도를 예술 형태로 선보이며, 각각의 타임피스를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의 노하우로 더욱 풍부하게 했습니다. 매뉴팩처는 기요세, 마이크로 페인팅, 에나멜링, 인그레이빙과 같은 전통적인 장인 기술을 정교한 컴플리케이션과 융합해 디자인과 기계 기술, 예술성이 어우러진 진귀한 전문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히브리스 아티스티카는 예거 르쿨트르의 끊임없는 혁신 추구를 보여주며 시계를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

### 리베르소 소개

1931 년, 예거 르쿨트르는 20 세기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자리매김한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경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위치는 세련된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형 케이스 디자인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코닉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90 년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79 개의 다양한 칼리버를 탑재하고 39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메탈 소재의 다이얼 뒷면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또는 젼스톤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리베르소가 출시한 지 90 여 년이 지난 오늘날, 리베르소는 탄생에 영감을 준 모던함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

####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르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여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

**[jaeger-lecoultre.com](http://jaeger-lecoultre.com)**